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학번	
휴대전화		이메일	

대학원명	호주국립대학교 / 환경 관리와 개발 석사	(국가) 호주
기 간	2013. 1. 7 - 2013. 12. 29 (1년 과정)	[귀국일: 2013년 12월 29 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14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호주국립대학교(ANU) 환경관리와 개발 석사과정 GMP 귀국 보고서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ANU 대학은 호주의 행정수도인 캔버라(Canberra)에 위치하고 있다. 호주의 유명 도시인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과는 달리 해안가가 아닌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까운 해안까지 (Batemans Bay) 까지는 차로 2시간, 시드니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밤낮의 기온차가 해안도시에 비하여 큰 편이다. 인구 30만의 계획도시로 도시 환경은 복잡하지 않고 어디서나 숲과 나무에 둘러싸인 깨끗한 청정도시이며, 도시 어느 곳에서도 시내 중심에 20-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교통도 그리 혼잡하지 않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지에는 4-5 곳의 한인 슈퍼와 교회 모임이 있어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교민과 교류하는데 불편함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공무원이 늘어 (2014년 현재 6명), 공무원 가족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초기 정착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나 KDI에서 2014년 과정에 입학은 없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ANU 대학은 특히 Crawford School 의 경우 호주정부 장학금으로 공부하러 온 호주 인접국가와 개발도상국의 정부관료, NGO 등의 구성비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마치 KDI에 한국의 장학금으로 입학한 개발도상국의 정부 관료가 많은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차이점은 충분한 생활비를 제공하여 (월 2400 달러 수준) 혼자 생활하기에 충분하고, 일부 학생은 가족까지도 불러들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교육의 질은 매우 높다. 장학금 혜택은 평균 65점 이상을 조건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모두 열심히 공부할 수 밖에 없으며, 표절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여 Turnitin 이라는 표절 검증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과목을 통과하기 어렵다. KDI 수준과 비교하자면 2-3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각종 세미나와 외부 강사의 초청강연 등이 풍부한 것도 학과외의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세계 30위권내의 유명대학의 명성에 맞게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ANU Crawford School 은 school of governments를 표방할 정도로 정부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실용적인 면을 중시한다. 주요 전공 분야는 행정, 경제, 환경 분야이다. 현재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공무원은 행정학 석사가 대부분이다. 입학

의 기준과 난이도도 행정, 경제, 환경 순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요즈음 관심을 받고 있는 환경분야에는 다수의 현지 호주인이 full time 과 part time으로 수강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석사 학위를 위해서는 8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필수과목이 5-6 과목 선택과목 2-3 과목에 불과한 형편이다. 전과목에 걸쳐 경제학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으면 수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 경제학은 한국인이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아울러 통계와 통계프로그램의 사용이 필요한데 KDI에서 배운 방법론외에도 실제로 본인이 사례를 찾아 적용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한학기 한과목에서 끝내야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Turnitin 시스템을 통한 표절의 검증은, 인터넷 및 세계 유수의 논문과 자료를 통하여 동일, 유사한 문장을 찾아내는 시스템으로 베끼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인용 문장을 자신의 것으로 다시 바꾸거나 하는 등의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작문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ANU는 기숙사가 부족하여 수요 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 집구하고 인터넷, 전화, TV 등 설치하고 가구 구입하고 또 거꾸로 집을 비우는 번잡한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숙사 비용이 그리 저렴하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외각이나 학교주변에도 있기 때문이며, 최근의 경향은 신규 주택의 공급으로 월세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가족 구성원과 차량의 구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주택에서 가족과 같이 차를 운행할 것인가와 비교 검토할 사항이다.

음식에 관하여는 맛있는 음식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오히려 가정주부의 음식 솜씨가 늘어서 온다고 보편된다. 도무지 외식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한인 식당도 2-3곳 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차량 주택 등 큰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현지에 유학하고 있는 지인이나 선배가 있다면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주택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 사이트: 참조

www.allhomes.com.au

중고차량의 구입 및 매각 사이트: 참조

www.carsales.com.au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ANU에서는 외국 유학생의 현지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활동 참여를 좋아하는 적극성을 갖고 있다면 학생회 등에도 참여를 할 수 있으며 학생회 간부들에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 등 특전이 부여되기도 한다.

또한 ANU의 다양한 세미나와 초청강연에 참석하여 지식의 넓히는 것도 매우 유익한 기회라 할 수 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호주 국립대학교 석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첫째로,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나의 경우 일 학기보다 이 학기의 성적이 좋을 수 있었던 것은 미리미리 과제물을 준비했다는 점일 것이다. 후반기에는 마감일에 간신히 과제물을 내기보다는 마감일보다 하루라도 먼저 과제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렇게 하면 영작문을 검토해주는 academic advisor 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둘째로 캔버라는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이며 그들의 표현을 빌면 매우 재미없는 (boring) 도시이다. 따라서 전원생활을 좋아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는 적당한 곳이지만, 다양한 행사와 도시의 화려함을 경험하기에는 부족한 곳이다. 이러한 점에서 KDI와 연계되어 있는 시드니 대학교로 공부하러 갈 것인가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KDI 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련대학 정보자료에는 ANU는 봄학기에 시작하므로 입학 허가를 가을에 받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미국 영국의 대부분의 대학이 가을 학기에 시작하여 여름까지 입학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것에 비하여 ANU 입학을 주진하다가 무산될 경우, 다른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ANU에서도 가을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영어 실력과 서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가을 학기에 입학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ANU에서는 KDI 학생에게는 정규 학기 시작 전 (1월)에 3주간의 IAP (Introductory Academic Program)을 무료로 제공하므로 이 과정 중에 잠시 기숙사에 머물면서 수업에 적응하며 동기생과 교분을 쌓고, 집과 자동차 등을 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동반 가족은 그 집과 차량을 구한 이후에 오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무엇을 공부하고 어느 국가,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는 능력, 적성, 현지의 친척지인 관계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나의 경우에는 대학 소개책자와 KDI소개 책자를 통하여 접하고, 이 대학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ANU로 목표를 잡았다.

다소 어려운 과정을 마치고 나니 자부심을 느낀다. 도전을 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120%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ANU는 추천하고 싶은 대학이라고 생각한다.